

## Robert Vannoy 박사, Kings Lecture 14

© 2012, Dr. Robert Vannoy, Dr. Perry Phillips, Ted Hildebrandt

### 엘리야와 엘리사, 절대 연대기

2. 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1) 엘리야의 첫 등장 - 열왕기상 17:1-

6 2) 사르밧의 과부 -

열왕기상 17:7-24

엘리야와 엘리사. 개요의 2페이지에 있는 Ahab 아래에 있습니다. "2. d"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입니다. "1"은 "엘리야의 첫 등장, 열왕기상 17:1-6"입니다. 그리고 "2"는 "사르밧의 과부, 왕상 17:7-24"입니다. 나는 그 자료에 대한 구속적 역사적 접근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두 섹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주로 MB Van't Veer의 책 *My God is Yahweh* 에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작업했습니다. 이 책은 Elijah에 대한 토론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개요의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멀고 두 개의 세션만 있습니다. 내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료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 싶지만 단지 몇 가지입니다. 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의 “E”까지만 앞으로 밀겠습니다. Karkar 전투에서 Ahab의 역할은 그 직후입니다.

3)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열왕기상 18:4)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함 그러나 그 전에 3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 열왕기상 18장” 이다. 나는 그것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든 엘리야 서사 중 가장 친숙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은 그런 일에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서너 번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할 때 갈멜에서 승리한 직후 엘리야의 도주입니다. 그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도망하여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 그곳은 시나이 산입니다. 열왕기상 19:1-8에 나와 있습니다.

5. 호렙 산의 엘리야 - 열왕기상 19:1-18 그 다음 “5” 는 “호렙 산의 엘리야” 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9:1-18입니다. 당신은 그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바람, 지진, 불, 그리고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가져왔습니다. 그 목적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항상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매우 낙담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곳 갈멜산에서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 11절에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나가다.’ 그 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 불이 나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불이 난 후 부드러운 속삭임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더니 그러자 그에게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때를 기억하고 모세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 속에 계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그분은 천둥과 번개, 즉 자신의 강력한 현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엄한 현상이 아니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세 가지 일을 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 거기에 이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입니다.  
 셋째는 “아벨므 홀라에게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바르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a)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이 행해졌으나 엘리야가 여기에서 주어진 이  
 사명에서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기대하고 이것이 달성된 방법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성취된  
 것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었고, 그것은 엘리야를 계승하기 위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수행되었습니다  
 . 그리고 당신은 열왕기하 2장에서 그 성취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엘리사의 삶과 사역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열왕기하 2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곳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출발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 6절에서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나이다 하니 그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사람이 걸으니 엘리야가 그 겹옷으로 요단 물을 가르고 두 사람이 걷더라

그런 다음 9절에서 저는 여러분이 9절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 “내가 당신의 영의 갑절을 상속받게 하소서” ? 나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두 배나 더 효과적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몫”이라는 표현은 장자가 두 몫을 받는 이스라엘의 상속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용어를 사용하여 요구하는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거니와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네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그를 보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때 엘리사는 그의 망토를 집어 들었다. 그는 요단강으로 돌아가고 이전에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물이 그를 위해 갈라집니다. 사실상 그가 후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이것은 엘리사를 계승하여 선지자로 기름 부으라는 엘리야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명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행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일련의 사건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 장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12절입니다.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여!’ 엘리사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다.” 이 표현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표현이 종종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표현이 그를 하늘로 데려간 불말과 불병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맥락에서 밀접하게 온다. 그러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 뭐래?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이 “엘리야야, 너는 나라의 힘이요 요새” 라고 생각한다. 보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니 엘리사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충성과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다시 순종 과 언약의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곧 나라의 힘인 보루였습니다. 그것이 요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를 하늘로 데려간 병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중에 엘리사에 대해 언급되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죽을 때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그를 보러 내려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는 울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리고 엘리사는 같은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엘리사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현의 의미인 것 같고 확실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언약에 대한 순종에 있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언약의 순종으로 부르신 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병거의 수가

아니라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왕기하 2  
장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주어진 세 가지 임무 중 세 번째 임무의  
성취 또는 수행입니다.

b) 시리아 하사엘의 기름 부음 열왕기하 8장 7-15절에서 당신은 이 세  
가지 임무 중 첫 번째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사엘의  
기름 부음입니다. 물론 열왕기하 8장에서 이것은 엘리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왔느니라  
하사엘에게 이르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소서 그를  
통해 여호와께 의논하십시오.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느냐?” 고  
물으십시오. 하사엘은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마스쿠스의 모든  
좋은 물건을 낙타 마흔에 실을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보내어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느냐 묻게 하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으라 하시니이다’  
,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정녕 죽을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는  
Hazeal이 당황할 때까지 고정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인님이 왜 우십니까?'  
 하사엘이 물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견고한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치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니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나이까 "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벤하닷이 '엘리사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사엘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두꺼운 천을 가져다가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펴고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하사엘의 공식적인 기름 부음으로 이것을  
 수행할 수 없지만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사엘은  
 벤하닷을 암살하기로 결심하고 성공합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압제자였으며, 시리아 치하에서 하사엘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많은 북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작업의 성취입니다.

3) 엘리사가 선지자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 - 열왕기하 9장 세 번째는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 3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문을 열고 실행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3절까지 내려가면 그 성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그 당시 왕이었던 요람에 대해 음모를 꾸몄고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이는 매우 중요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알 숭배를 없애고 북쪽에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작업의 성취입니다. 보자, 그것은 모두 호렙에서 엘리야 아래 있었다. 호렙 산에서 그에게 세 가지 임무가 주어졌고, 그 후에 우리는 그 세 가지 일이 수행된 방식을 봅니다.

이차형. 카르카르 전투에서 아합의 역할과 그 직후 그의 죽음 내가 언급했듯이 이제 나는 엘리야와 엘리사 하에서 이 하위 항목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Ahab 아래의 "e"로 내려가 봅시다. “카르카르 전투에서 아합의 역할과 그 직후 그의 죽음.”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앗수르의 손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722년에 북왕국을 공격하여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합 시대로부터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722년 이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앗수르와

조우했습니다. 즉,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이전에 북왕국과 앗수르 사이에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아시리아 기록에서 이름이 언급된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의 비문 중 하나에서 그가 오란테스 강 전투에서 연합 왕들을 물리쳤다고 말하는 살만에셀 3세가 언급합니다. 오란테스 강은 시리아 북서부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Shalmaneser는 그가 그곳에서의 전투에서 연합 왕들을 물리쳤다고 말하는데, 그 중 하나는 Ahab였습니다. 그는 그 왕들의 연합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살만에셀은 “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병거 2,000대와 보병 10,000명을 연합군에 바쳤다. 다메섹 하닷에제르가 병거 700대와 기병 700명을 보내니라.” 따라서 다메섹 왕이 아합보다 훨씬 적게 기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의 아합의 이야기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 연대기 문제와 카르카르 전투

그러나 그것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계산과 추론에 의해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에 대한 절대적인 날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구약 성경 본문에 상대적 날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고, 다음 왕은 15년, 다음 3년, 그 다음 40년을 다스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들이 북쪽과 남쪽 모두에서 서로를 따라가며 얼마 동안 연속적으로 통치했는지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절대적인 연대를 얻는 한, 어느 시점에서 열왕기에서 발견한 상대적인 연대를 절대 연대에 대한 고정된 날짜를 제공하는 무언가에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방금 몇 분 전에 이야기한 예후의 혁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8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 그것이 841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일에 대한 절대적인 날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코스 초반에 *Zondervan Bible Encyclopedia* 에 있는 *J. Barton Payne*의 기사를 읽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연대기의 몇 가지 문제와 아이디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문제 중 일부는 데이트에 관한 한 후기 왕에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읽기 섹션에서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추론을 따르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Expositor's Bible Commentary* 의 논의를 따르기 위해 정말로 노력해야 합니다. Qarqar 또는 Karkar의 전투와 왕국 시대의 절대적 연대에 대한 중요성에 관한 Edwin R. Thiele의

*히브리 왕 연대기* 에서 한 페이지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29 페이지에 있는 이 책은 그의 더 큰 작품인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의 일종의 대중화 및 요약본입니다 .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 작은 책으로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9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Eponym 목록. 이것은 연도의 이름을 딴 중요한 관리들의 목록입니다. 그것은 아시리아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습은 연호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1 세기의 2012년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연도에 이름을 붙이고 왕이나 고위 관리나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그의 이름을 연도에 붙였습니다. 이름은 에피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름의 시조 목록이 있고 각 이름은 연도를 나타냅니다. 아시리아 에포님 목록입니다.

Assyrian Eponym List 892-648 BC Thiele의 인용: “이것은 연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중요한 관리들의 목록입니다. 매년 어떤 국가 관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사람은 왕, 야전 사령관, 술 맡은 관원장, 고위 시종장 또는 아시리아 지방의 더 어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연도의 이름을 딴 남자는 시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시조의 해였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인 eponyms 목록이

있는 경우 연속적인 아시리아 연도 목록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시조명 목록을 보존했다는 사실은 아시리아 역사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록은 892년부터 648년까지 존재했습니다.” 892년부터 648년까지 매년 긴 이름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히브리 군주국 시대의 많은 부분과 겹칩니다. eponyms 목록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eponyms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eponymy 동안의 제목과 위치 및 주요 사건을 제공하는 서판의 수입입니다. 이러한 목록은 853년부터 70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시조명 목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853년에서 703년 사이에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 Luzanu의 주지사는 시조였습니다. 시조 연도가 될 것입니다. Ur Sadalu가 연도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Ur Sadalu가 같은 이름이었던 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마누월에 일식이 일어났다. 천문학적 계산은 그의 해에 이 일식이 있었다고 언급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763년 6월 15일로 고정했습니다 .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그 해가 몇 년이 되었을지 알려줄 수 있지만 동시대 및 수학적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날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기법은 앗수르의 연대기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Ur Sadalu가 763년에 설립된 날짜에 대해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이름도 마찬가지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이 날짜의 머리말과 뒤로 돌아가 올해가 몇 년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해를 일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892년부터 648년까지 아시리아 역사에서 매년 절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문학적 계산에서 시조 목록으로 작업할 수 있고 그로부터 아시리아 기록에서 이 전체 연도 목록에 대한 고정 날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서: “히브리 왕들의 이름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앗시리아와 이스라엘과의 접촉이 있었던 특정한 시조 연도입니다. 이들 중 하나는 Daian Assur의 시조입니다. 날짜는 그 시조 연도의 853년입니다. Shalemneser III의 6년에 그는 지중해 제국의 Qarqar 전투에서 서부 왕들에 맞서 싸웠으며 그 중 한 명은 이스라엘의 Ahab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합이 853년에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년 후, 살만에셀 3세 18년인 841년인 아다드 메마니의 시조에서 아시리아 기록은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이아아우 왕으로부터 공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 .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왕을 예후라고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841년은 이스라엘 연대기에서 중요한 날짜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연대기에 따르면 살만에셀 6년(853년)과 카르카르에서 아합과 싸운 때 사이의 12년이다 . 그리고

히브리 연대기에 따르면, 아합의 죽음과 예후의 계승 사이에도 12년이 걸렸다. 즉, 아합에게는 공식적으로 2년, 즉 실제 1년, 요람에게는 공식적으로 12년 또는 실제 11년이 됩니다. 따라서 아합이 죽은 해는 853년, 예후가 통치를 시작한 해는 841년이다. 이것은 또한 카르카르 전투가 12년 때문에 아합의 생애의 마지막 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연대기에서 두 개의 고정된 날짜를 제공합니다. 물론 고정 날짜를 얻으면 Kings의 연대기 시스템 내에서 작업하여 다른 날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구약 연대기가 의존하는 갈고리입니다. ”

출애굽 날짜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시점에서 출애굽 후 480년이 되는 솔로몬 통치 4년(왕상 6:1)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 다시 출애굽기로. 그런 다음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의 연결 고리를 추적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그 연대기를 족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내부의 성경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대기적 계산을 위한 충분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연대기에 약간의 빛을 던질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      나는 여기서 아합의 부분 아래에 이 카르카르 전투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압니다. 그 때문에 구약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구약 역사에서 꽤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아합의 죽음에 관한 한, 그가 왕들의 연합에 속해 있고 아시리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에 상황이 빠르게 움직였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합니다. 그는 여호사밧과 함께 그 동맹의 다른 구성원이었던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 올라갔을 때 죽었습니다. 그는 당시 다메섹 왕 벤하닷과 싸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29절을 읽으십시오 .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려 하노니 너는 왕복을 입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아람 왕이 병거의 장관 삼십이 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나 치고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외에는 싸우지 말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니 이에 그들이 돌이켜 그를 치고자 하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그를 쫓기를 그쳤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임의로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사이를 찼다. ”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벤하닷인 줄 알았는데 이 장에서는 그를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게 누군지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삼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고 말하지만 삼 년째에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다메섹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어난 일은 아마도 Ahab가 Salmaneser에 대한 그의 성공 실패를 복수하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Shalmaneser는 853년 카르카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분명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승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내려와 더 이상 남쪽 영토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는 이 연합을 되돌렸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다메섹을 약하게 하여 아합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길르앗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해에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벤하닷의 군대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무시된 예언자 미가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일어날 것이라고 정확히 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3. 아합의 아들들 가) 아하시야 자, 이제 2페이지 맨 아래로 가다가 3페이지 맨 위로 갑시다.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두 개의 부수적 요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하시야와 여호람이라는 두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첫째, 열왕기상 22:40의 아하시야, 그 다음 열왕기하 1:18; 그것은 역대하 20:25-37과 평행을 이룹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 아하시야가 유다 여호사밧 17년에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짧은 통치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의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좇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53 절 “그가 바알을 섬기며 섬기며 그의 아버지가 행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 그는 여호사밧과 선박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신은 지난주 과제에 대해 이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 배가 파괴되었을 때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2장 48절에 있습니다. 금을 구하러 오빌로 가려고 하되 돛을 펴지 아니하고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느니라.” 49절 “그 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항해하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거절하니라” 아하시야는 그의 집 지붕에서 떨어진  
 후에 죽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와 겹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에그론의 바알에게 사람을 보내 그가 회복되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이교도 신에게서 그 계시를 구하다가 엘리야와  
 대면하고 그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왕기하  
 1장의 내용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이년에 요람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당시 아합의 아들이기도 한 그의 형제  
 요람이 계승했습니다.

b) 여호람 - 열왕기하 3:1-9:25      그래서 그것은 “나” , “여호람,  
 열왕기하 3:1-9:25.” 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는 이유는 당신이  
 여기에 엘리사와 엘리사 내러티브에 대한 많은 자료를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고 3장 2절에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람에게는 아합과 아하시야보다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신성한 돌을

제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니라 그분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의 신성한 돌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거짓 숭배를 따랐습니다.

그는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초대하여 북왕국 의 지배에 반기를 든 모압과 맞서 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반역하여... 그 전투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다의 아하시야가 그들과 연합하여 아람을 대적한 또 다른 전투에서 그는 부상을 입었습니다-그것이 2열왕기하 8:29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라못에서 아람 사람들이 그에게 입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를 보러 이스라엘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그는 아람과의 전투가 끝난 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예후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선지자의 아들의 말을 들었던 곳에서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후가 요람에게 음모를 꾸미고 그가 와서 그를 죽이고 아하시야도 동시에 죽임을 당한다. 그것은 북방 왕과 남방 왕이 모두 BC 841년에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E. 여호사밧과 여호람 치하의 유다 네 시트의 "E"는 "여호사밧과 여호람 치하의 유다"로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 왕국으로 이동합니다. 어쨌든 오므리 왕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치하의 유다는 오므리 왕조와 거의 유사하므로 "E"는 시간에 관한 한 실제로 "D"와 유사합니다. 앞뒤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북왕국과 함께 한 길을 갔다가 남왕국으로 돌아온 다음 남쪽에서 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10분만 쉬자.

Alicia MacDonald 작성

테드 힐데브란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Perry Phillips 박사가 다시 설명함